

아브라함 카이퍼 세미나



아브라함 카이퍼와 한국 기독교(운동)

-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17시~19시
- ◆ 장소 : 숭실대학교 진리관 307호

- ◆ 인사말 | **전재중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2027 한국 카이퍼컨퍼런스 자문위원)
- ◆ 발 표 | **김정기 연구원**(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신학대학교 신칼빈주의연구소)
- ◆ 패 널 | **박현철 대표**(청어람ARMC)
 - | **손은정 총무**(영등포산업선교회)
 - | **성신형 소장**(숭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
 - | **정병오 공동대표**(기독교윤리실천운동)
- ◆ 대 담 | 참석자 모두

 기윤실 채널 유튜브 중계

- ◆ 공동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숭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
- ◆ 문의: 카이퍼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 02-794-6200 cemk@hanmail.net



세미나 참가 신청

[아브라함 카이퍼 세미나]
아브라함 카이퍼와 한국기독교(운동)
“포이동 — 카이퍼 — 광주”

- Ⅰ 발행일 2026년 10월 19일
- Ⅰ 발행처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 Ⅰ 편 집 김현아
- Ⅰ 디자인 윤동혁
- Ⅰ 공동주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숭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

홈페이지 www.2027kuyper.org
전화 02-794-6200



*자료집 다운로드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정병오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 조직위원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Ⅰ 인사말 - 전재중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 자문위원,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Ⅰ 발제 “포이동 - 카이퍼 - 광주”

- 김정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신학대학교 신칼빈주의연구소 연구원)

Ⅰ 토론

- 박현철 (청어람ARMC 대표)
- 성신형 (송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
-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Ⅰ 질의 및 토의

- 참석자 모두

[발제]

“포이동 — 카이퍼 — 광주”

김정기 연구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신학대학교 신칼빈주의연구소)

들어가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역사는 짧지 않다. 기운실은 1987년에 창립되어 내년이면 설립 40주년을 맞이한다. 시민사회운동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세계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공교롭게도 네덜란드 개혁파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로부터 유래한 것들이다.

기운실을 근간으로 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기운실 운동은 성공적인 운동이었는가? 기운실 운동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운동에 참여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과 동기를 제공했는가? 기운실 운동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회변혁에 대한 가능성과 삶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운동이었는가? 필자는 질문해본다.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는 선거부정에 대한 음모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 북한과 관련된 논란 등으로 급속도로 극우화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기독교시민사회운동보다 극우를 향해 그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한국에 처음 수용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예수교장로회 고신 교회가 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손현보 목사를 필두로 한 고신애국자연합(고애연)은 계엄정국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이 한국을 세운 지도자라 칭송하길 아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질문을 한 번 던져본다.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교세계관 및 영역주권운동을 한 이유와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한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발전한 네덜란드의 19세기 중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했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사용되었기에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먼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국에도 유용한 사람일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유용함을 살펴보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으로 포이동 266번지 재건마을과 광주 민주화항쟁을 들어보고자 한다. 포이동 266번지 재건마을은 판자촌으로 필자는 2018년에 유학을 가기 전 이곳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했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과 내가 배운 성경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답을 한 이후 한국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인 광주 민주화항쟁에 대한 카이퍼의 응답을 적어보고자 한다. 광주 민주화항쟁은 진보적인 자세를 가진 민중들에게는 하나의 민주화 성전과 같이 여겨진다. 반대로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들, 특히 개혁파 신앙고백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자들의 지지하는 민중들에게는 폭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왜 기독교세계관, 영역주권, 일반은총과 같은 사상을 펼쳤는가?

기독교 세계관은 네덜란드 개혁파 철학자이자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 산더르 흐리퍄언 *Sander Griffioen*에 의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기독교 사회 외부의 사건과 사상들을 통해 파악한 후, 구속사적으로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한 후, 기독교도들이 공동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고 이야기 한다.

흐리퍄언의 기독교세계관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개혁파 세계관은 나아갈 공통의 방향을 정하고 공통의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도 이들이 신문사, 대학교, 정치정당 등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 당시 카이퍼의 정당인 반혁명당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는 자유주의 정부와 투쟁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정부는 당시 기독교학교를 억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개혁주의적 신앙고백이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사립 기독교 학교들에게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부모들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고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개혁파 성도들의 일반 공립학교에 대한 반감은 상당했다. 카이퍼는 자신의 신문에서 개혁파 신도들이 자녀를 일반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이들을 사탄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정서가 인구의 8~10%를 차지한 보통개혁파 성도들의 정서라 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가난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도시 노동자들의 자녀와 농촌지역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굳건한 개혁주의 정통파 신앙이 흐려지는 일에는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은 고된 노동을 하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범죄자로 변해가기도 했고, 고된 장시간 아동노동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네덜란드의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교회에도 신도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1869년 이전까지 네덜란드의 당회원은 성도들이 선출할 수 없었다. 당회원들은 당회 내에서만 선출이 될 수 있었다. 국가는 총회와 노회의 임원의 구성권을 가지고 있었다. 노회는 지역교회에 목사를 파송했는데, 정통 개혁파 신도들은 용납할 수 없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교회에 파송되었다.

이런 정부의 억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분리를 시도했다. 분리된 교회는 네덜란드어로 분리된 교회를 뜻하는 아프스케이딩케르크(*Afscheidingskerk*)라고 불렸다. 정부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정부는 군의 숙영지를 분리된 교회의 가정으로 삼았다.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집을 망가뜨리고, 집주인들을 능욕했다. 분리교회의 지도자는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카이퍼는 이런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가 참된 네덜란드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했다.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정부는 프랑스혁명 이후 들어선 프랑스라는 국가와 네덜란드를 1795년부터 1813년까지 약 18년간 식민지배한 프랑스 식민정부의 영향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반대하는 '반혁명당'이라는 당의 이름을 짓고,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민중들의 양심과 사회적 자유와 다원성을 억압하는 국가와 투쟁을 시작했다.

영역주권

한국의 손봉호 장로로부터 소개된 영역주권이라는 것의 목표도 이런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에 대한 구조적인 저항이었다. 영역주권은 간단히 이야기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만물가운데의 왕권을 위탁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상의 지도자들과 사회의 각 영역에 그 영역을 다스릴 주권을 주셨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 영역주권은 거대한 사회에서 역할의 분할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방점은 국가가 제한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 제한적인 권한행사를 하게 만드는 방식이 국가의 영향을 제한하는 각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활동들이다. 예컨대 국가의 의료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의료인협회가 활동하고, 국가의 법률인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인협회가 법률인과 관련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카이퍼 당시에는 교육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카이퍼는, 공적 교육문제는 국가가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협회, 일반 교육협회 등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주권이라 함은 국가의 예산 배정, 운영의 자유, 교사 선발의 자유 등을 뜻한다. 국가의 영역은 교육의 질이 일정수준 유지되도록 감시하고, 교사들이 적절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등의 역할이다.

여기에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카이퍼는 국가를 필요 없는 악으로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리스도로부터 주권을 일부 위임받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법을 집행하는 기구이자, 국방을 감당하고, 세금의 집행과 복지 등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국가가 사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대신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포기하고 사회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다. 국가는 국가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을 하고, 사회는 사회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일을, 민중은 민중의 범위에서 제한된 일을 하는 것이 카이퍼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였다.

이런 탓에 카이퍼는 민주주의는 긍정했지만 민중주권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카이퍼에게 있어 주권은 반드시 민중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근원을 삼아야 했다. 카이퍼가 생각한 민중들의 역할은 정부관료나 의원들을 선발하여 국가를 감시하는 일이나,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뛰어들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의 도덕을 지켜나가는 일이었다. 즉 카이퍼는 국가-사회-민중이 각기 정해진 경계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바랐고, 그 누구도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믿었다.

카이퍼의 일반은총

카이퍼의 일반은총은 카이퍼가 한국에 소개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일반은총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비와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모두 주신다는 식의 모두에게 선한 하나님이라는 식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은총의 해석은 당시 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제한된 해석이다. 일반은총의 작동방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국가, 사회, 개인의 양심 안에서의 죄악의 영향을 제약(restrain)하신다는 것이다. 죄악의 제약의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의 죄악의 제약은 사회의 영역과 민중, 하급관리 등이 담당할 수 있다. 사회의 죄악의 영향은 언론을 통한 사회적인 토론과 집회,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 선전전(propaganda)등으로 억제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의 죄악의 영향은 사람들 간의 대화, 성령의 역사, 교육 등으로 제약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악들이 제약되고 나면, 그 안에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영광을 가리우고 있던 악한 것들의 활성화를 억제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은총의 골자이다. 하나님은 일반은총의 사역에 사람들과 기관들을 초대하신다.

그렇기에 일반은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쟁적이다. 가만히 있으면 일반은총은 작동하지 않는다. 아이가 붕괴되는 네덜란드의 제방을 막기 위해 팔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제방은 붕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만다. 카이퍼는 정통파 개혁교도들에게 악을 통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큰 곤경을 겪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초대를 하기 위해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을 성경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이런 카이퍼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1870년대 당시 카이퍼의 정당의 하원 의석 수는 전체 75석 중 4~5석에 불과했다. 수권정당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51석의 의석이 필요했다. 카이퍼가 인생의 과제로 삼았던 기독교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를 없애는 일은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헌법의 개정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 시민을 움직일 수 있는 민중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그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했다.

궁극적으로 카이퍼와 그 일당들이 억눌려야 했던 최대의 악은 자유주의 정당의 국가 운영이었다. 카이퍼는 다양한 사회적인 단체들과 정당 등을 동원해 이들의 독주를 멈추고자 했다. 예컨대 카이퍼의 반혁명당은 사회주의정당, 로마카톨릭 정당과 함께 선거 전략을 짰다. 특정 선거구에서 당선가능성이 없다면 그 선거구의 당원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큰 타 정당 후보들을 택할 것을 명했다. 반혁명당의 경합지역이 있다면 타 정당으로 하여금 반혁명당의 후보에 투표를 할 것을 권했다. 이런 식으로 카이퍼의 정당은 세를 늘려 정당이 설립된 지 9년만인 1888년 카이퍼의 반혁명당은 수권정당이 된다.

자유주의 정당의 문제는 자유주의라는 종교와 전통 등이 배제된 사고의 시스템을 국가 전체에

이식하려는데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가정의 주권,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한 네덜란드 개혁파와 로마와의 특별한 관계가 반영된 로마 카톨릭파, 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이라는 감정과 상황에 주목한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담고 갈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품격 있는 배운 시민들을 위한 정당이었다. 카이퍼는 종교, 사회적 쟁점, 문화, 사회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색을 분명하게 낼 것을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사회모델이 네덜란드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규정했다.

카이퍼는 자유주의 정당의 다양한 소수를 배제한 국가운영의 동기를 국가를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게 하는 국가의 '신격화'로 보았다. 쉽게 이야기 하여 국가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칭함 받기 위해서라 규정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권을 넘어서 국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국가의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카이퍼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를 신격화의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

서문의 어떻게 카이퍼는 성공적인 사회운동을 만들어 갔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먼저 정통 개혁파 신도들이 어렵지 않게 자각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공통의 적을 상정했다. 이 '자유주의 국가'의 문제를 '국가의 신격화의 시도'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문제의 핵심을 신학과 연관시켰다. 그리고 '일반은총'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 민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네덜란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사명감을 불러 넣어 주었다. 또한 '국가', '사회', '민중'의 영역을 분리하여 각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을 창출해서 당시 10퍼센트 미만에 불과했던 소수의 정통 개혁파 신도들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채널을 효과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였다.

포이동 266번지

필자는 2016년 포이동 266번지에 위치한 판자촌에서 지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당시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도움 일도 있으면 돕고자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전도의 열정과 약자에 대한 도움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포이동의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이주하게 된 이주민들이 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자 강남구청이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 용역 등의 물리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데에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포이동 주민들이 적당한 보상을 받고 판자촌이 아닌 더 좋은 삶의 환경으로

이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을 몇 푼 더 돈을 받기 위한 구차한 노력쯤으로 평가절하 해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포이동을 돕고 있었던 단체인 대학생사람연대의 한 친구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이 곳에서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나간 한 어르신이 계셔. 그 분은 이사 간 지 몇 달 후에 그리 높지도 않은 개천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되었어. 얇은 물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신 것이지."

그 친구의 설명은 이러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 포이동에서 삶을 영위해오며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나갔다. 강남이라는 부촌을 배경으로 절대적 빈곤으로 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다. 자신의 집 앞을 걸어오는 풍요로운 자들의 모델스러운 시선과 항상 쫓겨날 수도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 위축감들은 이들을 항상 짓눌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런 공동체는 어려운 시절을 버틸 힘이 되었고, 하나의 가족과 같은 헤어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가족과 생이별 하면 삶의 의욕을 잃듯, 이들에게도 이웃과의 이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된 것이다.

포이동의 고통의 배후에는 국가의 주권과잉행사가 있었다. 박정희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 초기 국가는 포이동 주민 중 다수를 차지했던 념마주이들에게 근로자활대라는 호칭과 명찰을 나누어주었다. 이들은 경찰을 통해 관리되었다. 념마주이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이미 찍혀있었다. 이로 인해 아무나 념마주이가 될 수 없었고, 념마주이는 경찰에 주기적인 신고를 해야 했다. 그리고 념마주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곳에 밀어 넣어졌다. 폭력적인 이주를 경험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는 그들과 그들의 다음세대들에게도 전이되었다.

국가는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88올림픽이 끝난 이후 근로자활대라는 조직을 없앴다. 이로 인해 근로자활대에게 주어진 땅에 살아갈 권리도 법적으로 상실되었다. 국가는 이들을 내어 쫓지 않고 1997년까지 베트남전 상이용사 등을 추가로 포이동 266번지에 이주시켰다. 이후 포이동 266번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아지자, 갑작스레 국가는 법을 이용해 이들에게 토지사용료 및 변상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근로자활대가 해체되었으니, 해체이후에 이용한 토지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금액은 1억 원을 초과했다.

2011년 포이동에 큰 화재가 발생해 70%의 가구가 불탔음에도, 이들이 재건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되었다. 강남구청은 이런 법리해석을 통해 복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건장한 용역들은 마을에 수시로 들이닥쳐 불탄 건물의 재건을 막았다. 화재이후 전염병의 창궐을 두려워하여 공중위생에 대한 대책을 강남구청에 요구하였지만, 구청은 이를 묵살했다.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필자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8년여 공부한 이후 포이동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어떠한 분석의 틀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어떤 해결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카이퍼가 이야기 한대로 포이동의 문제는 국가가 과도한 주권을 행사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공권력이 넝마주이들에게 특정한 호칭을 부여하고 어떤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면 자발적으로 자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법적 지위나 명칭을 줄 이유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예방차원에서 경찰을 통해 이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주권과용사용이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예방하는 일, 넝마주의들의 자활은 교회, 사회복지단체, 학교 등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 국가는 능력에서 벗어난 주권을 넝마주이들에게 행사했다.

포이동의 주민들을 다시 이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다. 국가는 적당한 보상과 대체 주거지가 있으면 이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이 살아온 수십 년간의 시간과 그간 만들어진 그들만의 영역의 삶의 방식이 존재했다. 그런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강제로 배제된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다. 포이동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변했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포이동 사태의 문제는 국가의 주권을 과잉사용하거나 부족하게 사용한데에 있고, 사회적 문제해결방법 대신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고집한데에 있다.

포이동의 문제를 카이퍼의 식으로 해결하자면,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 대체토지의 대여 혹은 불하, 이주를 위한 예산의 투입, 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적영역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 정신건강, 이주문제, 도시개발, 직업교육 등의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 하나의 컨소시움을 만들고 포이동 266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의 묘안들을 만들어가게 권한을 주었어야 했다.

아직도 포이동의 이주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있다. 국가는 자신들이 나서면 수많은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포이등을 가장 많이 탄압한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를 경제, 생활,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어 놓았다. 국가의 주권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신연희는 구청장직을 수행한 지 얼마 후에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간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청장이라는 작은 주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것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누군가 그녀에게 국가의 주권의 범위와 능력을 그렇게 넓고 강하게 잡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었다면,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을 수행했을 것이다. 강남구청장 주위에는 "지나친 국가의 주권의 행사의 저지"라는 일반은총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부족했다.

광주 민주화항쟁

포이등에 대한 카이퍼의 담론을 광주 민주화항쟁에 적용해보면 포이등을 둘러싼 국가주권의 오용의 문제가 다만 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광주 민주화항쟁은 카이퍼가 이야기 한 국가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주권 이상을 활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비참했던 사태라 정리해 볼 수 있다.

신군부의 전두환은 정국안정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 이들이 생각한 정국의 불안의 이유는 야당정치인, 언론인, 대학생, 광주 시민들의 불만이였다. 그들이 판단한 정국의 불안을 만든 영역은 외국의 침략과도 같은 국가적 영역이 아닌 사회와 민중의 영역이었다. 국가는 자신의 영역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곳이 아닌 사회와 민중의 영역을 군을 동원해 침범했다.

광주의 민중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반은총에서 이야기 한 바 악의 권세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적극적이였다. 국가의 악행이 곤봉에서 소총의 대검으로, 대검에서 공포탄으로, 공포탄에서 실탄으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겁을 내지 않고 무기를 들어 적극적으로 악의 억제에 동참하게 되었다. 항쟁의 기간은 10여일로 짧았지만, 국가가 영역주권을 침범할 경우 민중들은 본연의 임무인 악의 억제와 국가의 신격화를 막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은 생전에 이런 투쟁을 폭동이라 묘사했다. 그러나 카이퍼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은 결코 폭동이 아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우리의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카이퍼는 약자들에 대한 강자의 폭력적 억압에 폭력을 사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발전된 인간성이라 보았다. 즉 일반은총이 많이 작용한 국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 이야기 했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었던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간다.

카이퍼의 반혁명당은 당시 독일이 선교사 2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중국을 침공하고 중국의 칭다오에 조차를 한 것을 강대국의 농간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 서구 못지않게 문명이 발달했지만 약 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6천만의 인구를 가진 독일에 싸워 이기지 못한 것을 뒤쳐진 문명의 증거로 보았다. 카이퍼는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도 부당한 억압에 대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카이퍼의 반혁명당은 한국의 헤이그 특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일본과 싸워 이기라고 격려를 해 주었다.

즉 총을 들고 총에 맞선 광주의 시민들은 카이퍼의 관점에서 한국의 어떤 시민들보다 높은 인간성을 보여준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 총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억제할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다. 거대한 악을 억제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싸우는 것은 하나의 일반은총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카이퍼를 자주 인용하는 강남구 인근에 밀집한 보수성향의 사람들은 카이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카이퍼와 같이 개혁파가 국가의 수장이 될 경우 국가가 위대해질 것이라 착각한다. 그래서 강한 기독교 국가를 주창한다. 기독교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한 번 출현하길 바라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상 카이퍼가 한국에 현현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카이퍼는 국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상당히 그의 명성을 잃어버렸다. 카이퍼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국가의 수상이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원칙과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판과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그는 대규모로 군을 동원해 인도네시아 아체인들을 살상했다. 철도파업이 일어났을 때 파업을 잠재우기 위해 군을 투입했다. 그는 야당시절에는 용감한 아체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강압적인 네덜란드 정부를 비판했다.

야당시절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정신을 깨운 지도자로 평가받지만, 여당시절의 카이퍼는 국가의 주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피할 수 없었다. 국가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 국가의 신격화를 끊임없이 비판한 카이퍼도 주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시민운동에 대해

우리는 앞서 이야기 한 논의들을 통해 몇 가지 제안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독교 시민운동에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있어야 한다. 카이퍼의 사상의 핵심에는 "국가의 주권남용에 대한 억제"라는 목표가 있었다. 이런 목표는 신학과 사회적 사상, 정치적 프로그램을 잉태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기독교사회운동에서도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하나의 통합된 목표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카이퍼가 추구했던 목표를 지금 한국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는 국가의 신격화가 곧 우상숭배의 죄악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강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국가가 곧 옳은 국가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필자는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이 민중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국가의 과도한 자아비대가 국가신격화의 전조증상임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등과 관련해서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이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신학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기독교시민단체가 나서서 국가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 민중의 영역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가 어떤 정도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중이 군집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집회에 나가서 피켓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단체에 속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에게 어느 정도의 일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누군가는 만들어 줘야 한다. 이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겠지만, 이런 영역별 경계가 구축될 경우 사회의 영역과 민중의 영역에서 더 많은 참가자들을 얻을 기대를 해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운동을 할 자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한국의 역사를 카이퍼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의 곳곳에는 이런 국가주권의 과잉과 부재, 사회적 영역과 국가적 영역의 불명확한 분리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남아있다. 다만 민중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 등을 통해 국가의 과도한 주권을 제약하고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진 긍정적인 교훈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의 영역에 속한 해경, 사회의 영역에 속한 한국 해운조합은 각자의 영역에서 적합한 주권을 행사하는데 실패했다. 민중들은 뒤에서 국가를 압박하여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여론을 만들었다. 각자의 영역을 분리해 문제를 정리해 본다면, 각 영역에서의 발전의 방향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소위 말하는 입각, 국회로의 입성 등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사회는 사회의 영역에서 주어진 바를 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과거 사회운동에 전력했던 이들이 국가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들이 기대한 것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고백을 들곤 한다.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들이 가진 주권은 그들이 사회에서 행사해왔던 주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단체에서 국가라는 전혀 다른 영역을 통해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다소 급진적이겠지만, 국가승배의 죄를 회개하는 주간을 정하는 것이다. 국가 신격화를 방조하거나 지지하고, 신격화된 국가의 향수를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주권을 행사한 정권을 사회와 민중차원에서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주간을 갖는 것이다. 이 주간에는 여러 기독교시민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이 모여 과거를 반성하고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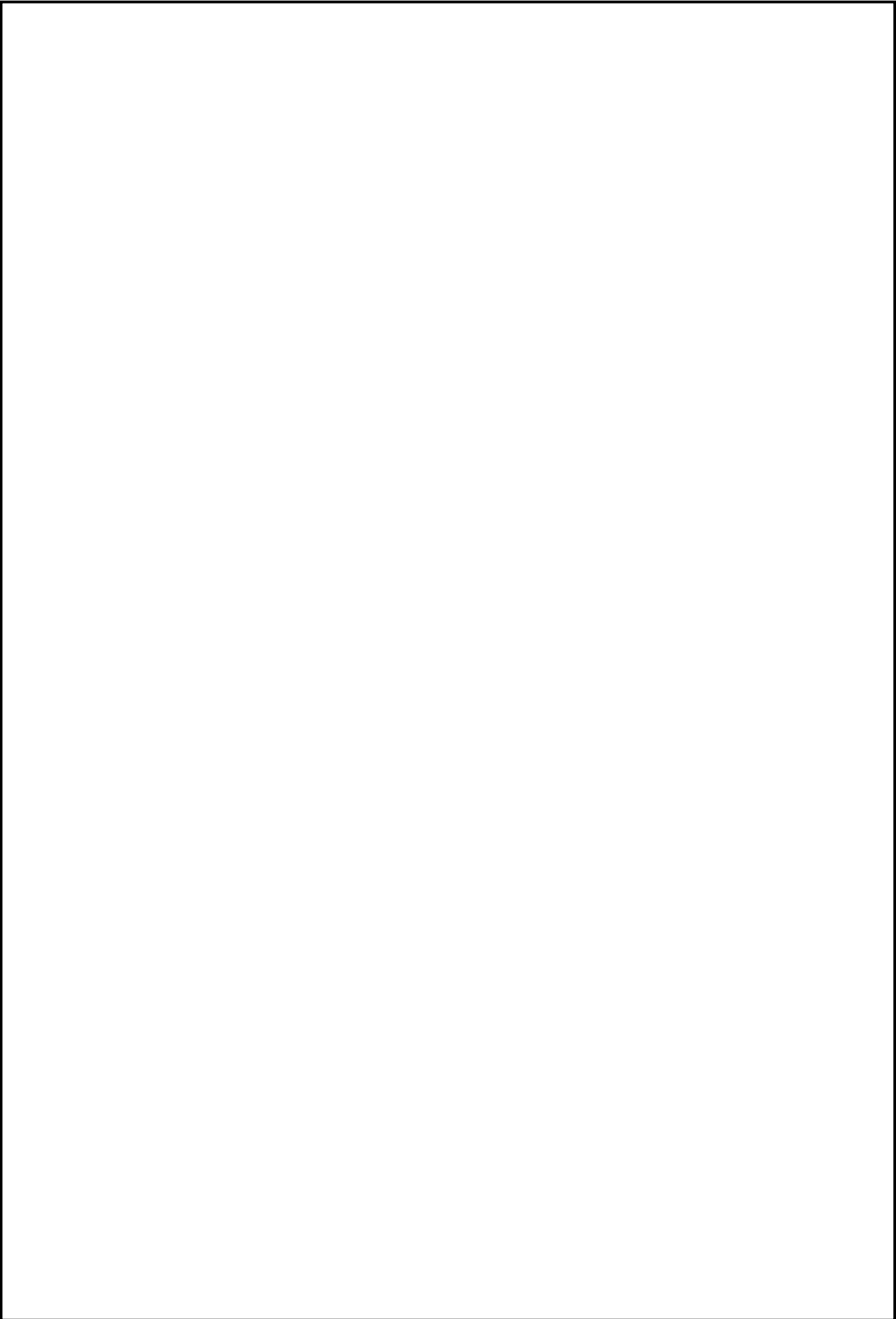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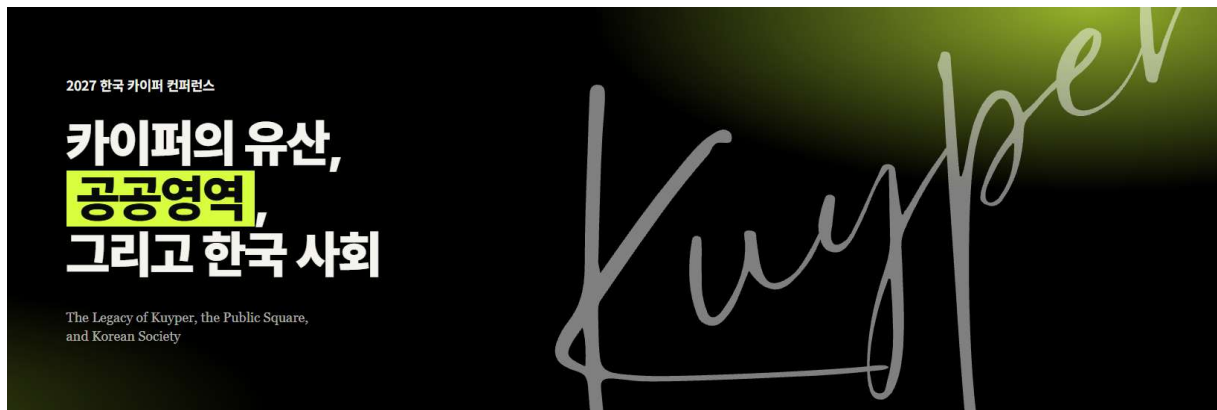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은 국가의 주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어 왔던 한국의 상황에서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강남의 그리스도인들이 카이퍼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포이동 주민들을 돕는 손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높은 학력과 재력, 전문성은 국가의 신격화를 막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포이동 주민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보고, 강남구청을 압박한다면 강남구청은 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광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광주를 통해 카이퍼를 기억하고, 카이퍼를 통해 광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면 교회는 국가가 두려워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회단체가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집회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와 세월호 뱃지, 5.18을 기념하는 뱃지가 거리에 넘실거린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로부터 억압받는 수많은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카이퍼의 당시 맥락과 그 안에서의 활동 등을 더 잘 반영한다면, 단순한 학술적인 모임을 넘어서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아젠다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억제해야 할 최악의 영향이 어디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과 투쟁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다행히 지금은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카이퍼를 더욱 깊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카이퍼의 초기 활동의 동기, 그가 싸웠던 대상, 그가 비판 받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이외의 곳에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카이퍼 역시 그런 상황 속에 신격화되어 소비되어 오고 있는 경향이 크다.





카이퍼 컨퍼런스(Kuyper Conference)는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가 남긴 신학적·사회적 유산을 연구하고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 전통을 계승하며, 기독교 신앙이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언론, 과학, 법, 문화 등 공공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컨퍼런스에는 신학자 뿐 아니라 철학자, 역사학자, 목회자, 정치인, 시민사회 지도자, 교육자,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문적 교류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신앙과 공공생활을 연결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는 “카이퍼의 유산, 공공영역, 그리고 한국 사회”를 주제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2027년에 창립 40주년을 맞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개교 130주년을 맞는 숭실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카이퍼의 신학적·사회적 유산을 오늘의 한국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성찰하고, 기독교 신앙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학술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

“카이퍼의 유산, 공공영역, 그리고 한국 사회”

“The Legacy of Kuyper, the Public Square, and Korean Society”

- 날짜: 2027년 2월 25일(목) ~ 2월 27일(토)
- 장소: 숭실대학교
- 주최: Calvin University, Calvin Theological Seminary(미국 칼빈대학교, 칼빈신학교),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숭실대학교
- 카이퍼상 수상자: 손봉호 (Bongho Son) /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삼으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02-794-6200, cemk@hanmail.net)



숭실대학교 가치와윤리연구소는 한국 사회에 가치와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를 향한 기독교적 가치를 확인 및 확산하며, 철학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 업무로 저역서 출간, 유관 학회와 연대한 학술 활동, 전문가 집담회, 해외 교류 활동 등이 있습니다.

(02-828-7177, seongshil@ssu.ac.kr)

2027 한국 카이퍼 컨퍼런스

2027kuyper.org

Kuyper

카이퍼의 유산,
공공영역,
그리고 한국 사회